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즐거운 우리집

(26 Fairmount Avenue. 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오 금 숙

2011년 8월

# 즐거운 우리집

(26 Fairmount Avenue. 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오 금 숙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오금숙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1년 8월

26 Fairmount Avenue

Keum-Sook Oh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ugust 2011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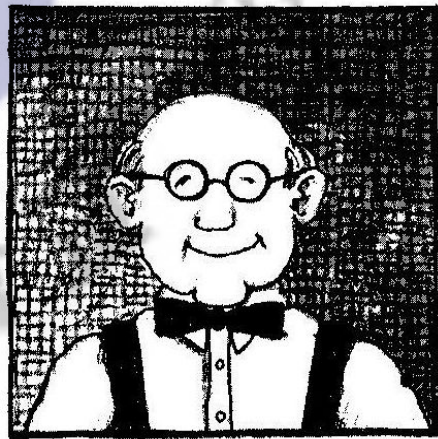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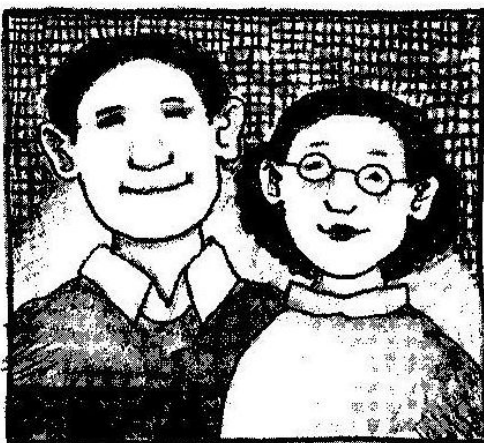
아빠



나나할머니



툼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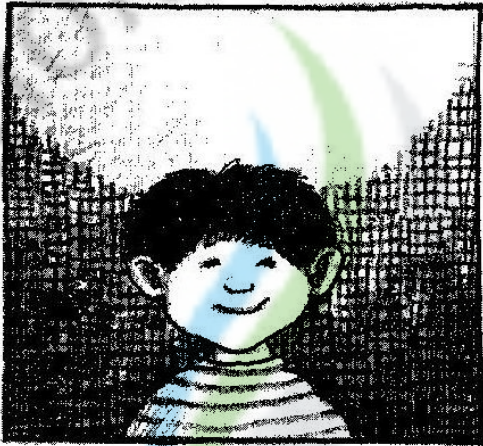


찰스삼촌과 비바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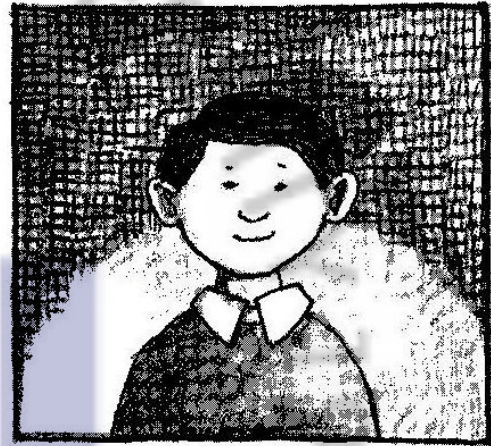


모린네 가족





버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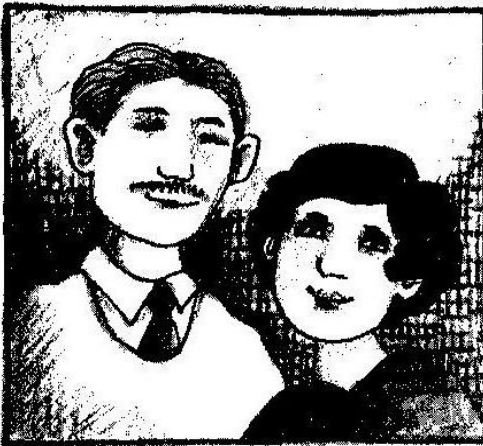
나



넬 고모할머니



폴강 나나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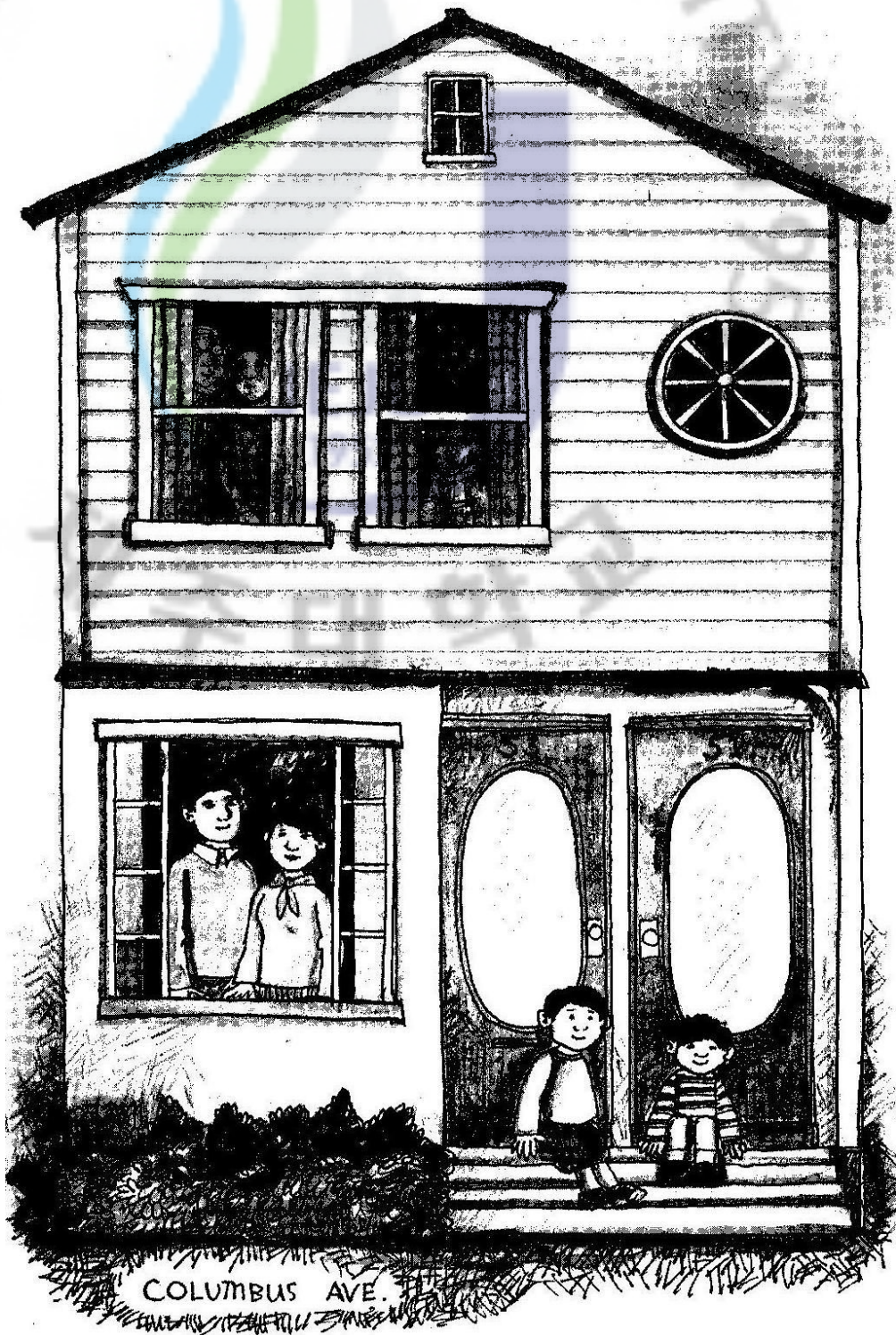


크레인 아저씨와 아주머니



캐롤 크레인





# 즐거운 우리집

글·그림 토미 드파올라  
번역 오금숙



PUFFIN BOOKS



## 제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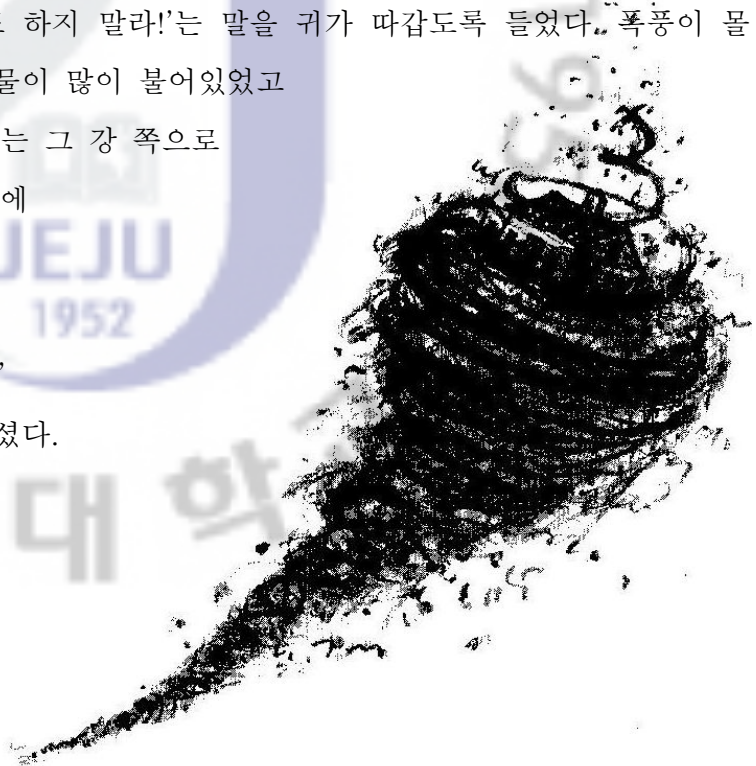


우리가족이 원래부터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에 살았던 것은 아니다.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그 곳으로 이사 왔다. 내가 그 걸 기억하는 것은, 내가 겨우 네 살이었던 1938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코네티컷주 메리덴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었기 때문이다. 그 때 우리가족은 첫 번째이면서 유일했던 집을 막 짓기 시작했었는데,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집처럼 집이 비틀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그렇게 엄청난 폭풍이 뉴잉글랜드까지 몰아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폭풍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

우리가족은 콜럼버스에버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족은 모두 한

층에 살았다. 다른 가족이 위층에 살고 우리는 아래층에 살고 있었다.

며칠 동안이나 계속 비가 내렸고 그 비로 인해 강물이 넘치기도 하였다. 우리 집 뒤뜰 근처에 정말 이상한 시내가 하나 있었다. 하버브룩이라고 불리는 강이었다. 메리텐을 꿰뚫으면서 꼬불꼬불 구부러져 흐르는 강이었는데, 주변 공장들은 이곳에다 쓰레기를 버렸다. 매일 매일 다른 색깔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하버브룩은 물이 많이 불어있었고 아주 더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 강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서도 안 되었다. “토미야 하버브룩 근처엔 절대 가지 말거라” 하고 엄마는 자주 말씀하셨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점심때가 막 지났을 무렵, 아빠는 이발소에서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셨고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다. 여덟 살 이었던 형 버디는 학교에 있었다.(형의 진짜 이름은 아빠의 이름을 따서 조우 주니어였음.)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부엌에서 뭔가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토미야 외투 입어. 형과 다른 친구들을 데리러 가야해. 엄청난 폭풍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일찍 집으로 보내고 있대.”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비를 가르며 형이 있는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는 차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건물 앞에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나는 저 위로 결코 잊을 수 없을 장면을 보게 된다.

어떤 아이가 계단 꼭대기에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 때 갑자기 거센 바람,

정말 강한 돌풍이 불었고

그 아이는 공중으로 떠올라

자꾸만 자꾸만 올라

가다가 마치 메리포핀스에

나오는 장면처럼 계단

아래로 떠내려 왔던 것이다.



콜럼버스에버뉴에 있는 집까지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었는데, 차 안에는 형과 캐롤

(캐롤은 우리 동네에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이고 아역배우인

셜리 템플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캐롤이 셨리 템플과 다른 점은

캐롤의 머리카락은 빨간색이고

셜리 템플은 갈색 이었다는 것),

쌍둥이 애덤스, 포니아 형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몇 명 더 타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비

명을 질러대기도 했다. 거리에는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있었고, 나뭇잎들은 차주



위로 휘날렸다. 토마제티 식료품가게의 간판이 떨어져 날아가면서 하마터면 우리를 맞힐 뻔 했다.

우리는 겨우 아파트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엄마가 차 문을 열자 우리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캐롤의 엄마인 크레인 아주머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겁에 질려 있었다.

크레인 아주머니는 폭풍을, 특히 천둥치는 폭풍우를 무서워했다. 천둥소리가 한 번이라도 들리면 크레인 아주머니는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불렀다.



“플로스, 플로스!” (우리엄마의 별명인데 ‘플로란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엄마는 ‘플로스’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 ‘플로시’라고 불리면 더 좋아하셨다.)

엄마가 문을 열면, 아주머니는 캐롤을 앞세우면서 들어왔다. 그럴 때마다 그나마 엄마가 아주머니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세인트조셉 성당에서 받아온 성수를 카톨릭 신자도 아닌 크레인 아주머니에게 뿌려주는 것 뿐이었다. 크레인 아주머니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크레인 아줌마가 번개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을 보면 그래도 확실히 그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 날도, 아빠가 나무 없는 곳으로 차를 세우는 동안 엄마는 크레인 아줌마를 진정시키면서 성수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계셨다. 폭풍 때문에 전기가 나가서 엄마는 먼저 촛불을 켜다. 조금 후 엄마는 성수를 가져와 크레인 아줌마에게 조금씩 뿌려주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모두 엄마가 자기들에게도 성수를 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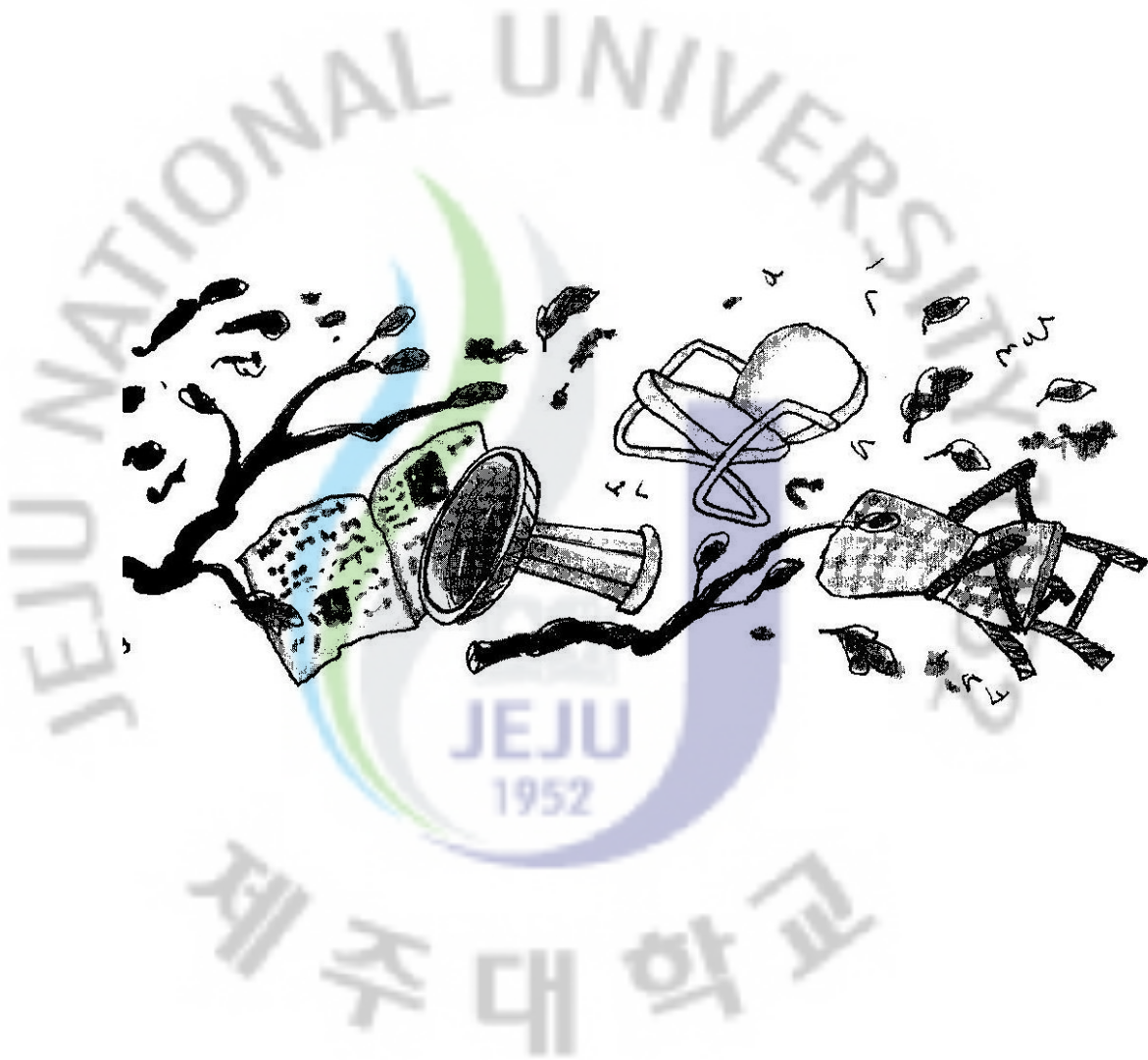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던 모린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딸 알티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무슨 파티라도 열렸나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모두가 창문 쪽으로 모여들었다. 세차게 웅웅거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마당 여기저기에서 바람에 날리는 물건들을 보았다. 나뭇가지, 잔디용품, 쓰레기통, 심지어 물받이통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위를 올려다보니 검은 먹구름 사이로 파란하늘이 조그맣게 보였다. “폭풍의 눈이야.”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내가 올려다보았을 때 눈처럼 생긴 것은 없었다. 나는 궁금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바람은 그 기세를 되찾았고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은 화물열차가 뿜어내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휘몰아쳤다. 아빠는 “새집은 괜찮아야 할 텐데.”라며 걱정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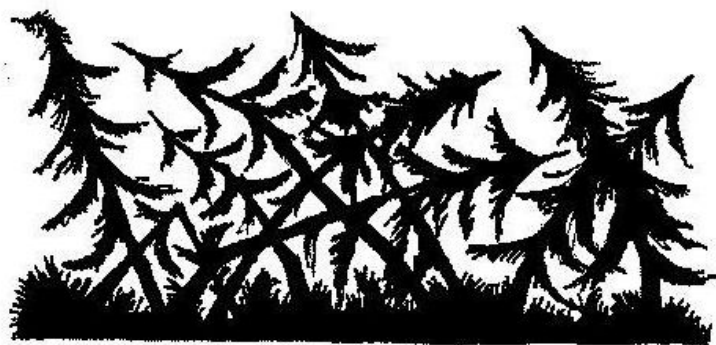
매일 밤 우리에게 책을 읽어주던 것처럼 엄마는 책꽂이에서 책을 하나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읽어 주기 시작했다. 버디 형, 캐롤, 애덤스 쌍둥이, 포니어 형제, 그리고 물론 나도 거기에 있었다.

세 시간 후, 1938년의 그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너희 집 전기는 들어왔니?”하고 누군가 큰 소리로 묻자 “아니. 너희 집은 어때?” 하고 되물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엄마에게 계속 졸라댔다. 그래서 결국 아빠와 버디 형 그리고 캐롤과 캐롤의 아빠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우리 마을 끝에 있는 험락그로브 숲으로 갔다. 그 곳은 큰 소나무들이 있는 작은 숲이다.

숲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조심하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이 말해주었다. 나무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다. 거인이 와서 막대 쌓기 게임이라도 하고 간 것처럼 나무들이 사방으로 엇갈려 쓰러져 누워 있었다. 어떤 나무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쓰러진 채 있었다. 우리가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로 이사한 후에도 콜럼버스에버뉴로 갈 때면 나는 용기를 내어 험락그로브 숲을 통해가는 지름길을 선택하곤 했다. 그 숲 속에는 작은 시내가 있다. 그 시내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외나무다리처럼 쓰러져있었다. 균형을 잘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나무 위를 건너갈 수 있었다.

1938년은 특별한 해였던 것 같다. 단지 그 폭풍 때문만은 아니다.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해였다.



##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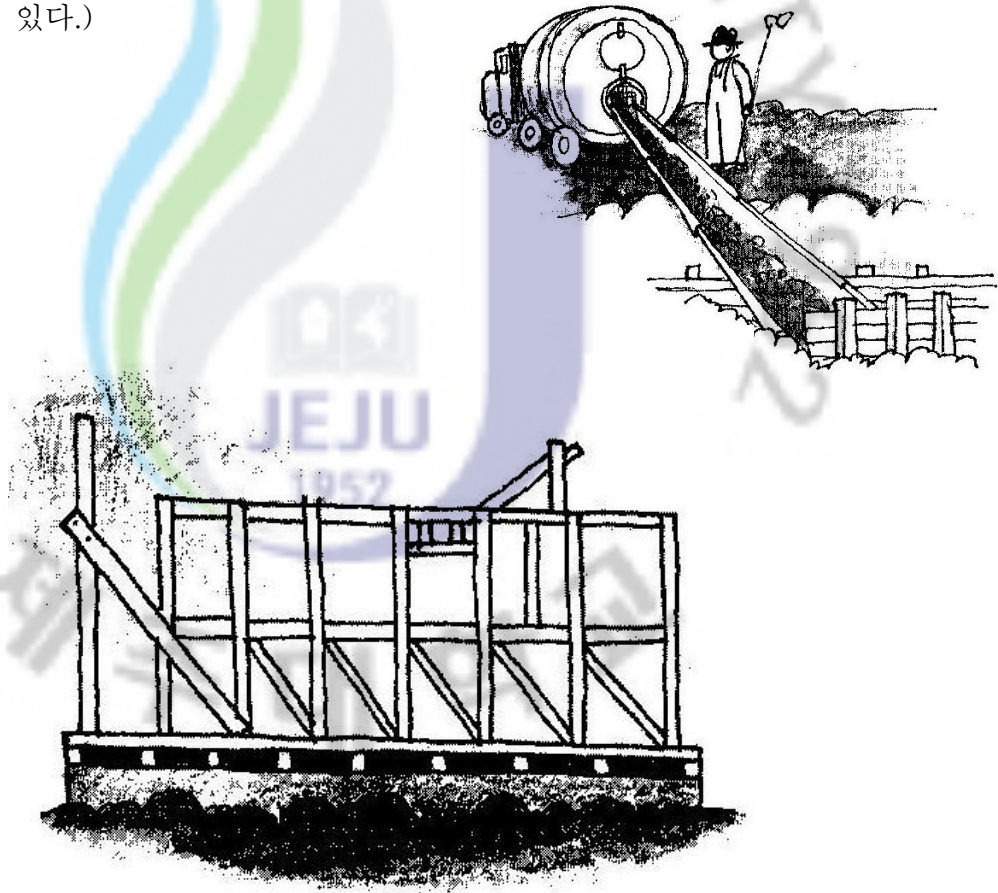
엄마 아빠가 집을 짓기로 결정하셨을 때 주위 사람들은 집을 너무 ‘벽지’에다 짓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외떨어진 곳이라는 뜻이다. 그곳에는 포장 된 도로도 없었다. 흙길로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콜럼버스에버뉴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다. 먼저 증기 샅이 땅에 큰 구멍을 뚫다. 다음에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왔다. 일꾼들은 미끄럼틀처럼

보이는 긴 통으로 시멘트를 퍼냈다. 나는 뿜어져 나오는 콘크리트가 화산에서 나오는 용암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전에 엄마와 함께 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본적이 있다.)



기초공사와 지하실 공사가 완성되자 인부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 파놓았던 구덩이 위에 나무를 올려놓자 바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셋기둥이라는 나무판을 세웠다. 아저씨들은 이 나무판을 ‘2 에 4’라고 불렀다. 두께가 2인치이고 넓이가 4인치인 나무판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들이 셋기둥 세우는 작업을 막 마쳤을 때 폭풍이 몰아쳤다. 아직 벽을 세우기 전이어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 집은 바람에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짓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은 바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지하실과 부서진 나무 토막들 뿐 이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집을 생각하면 슬픈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게 우리 집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친척들은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의  
우리 집에 대해 매우 들떠있었다.

아마도 큰 마당과 멋진 경치  
때문이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서는

웨스트픽 언덕도 볼 수  
있었고, 그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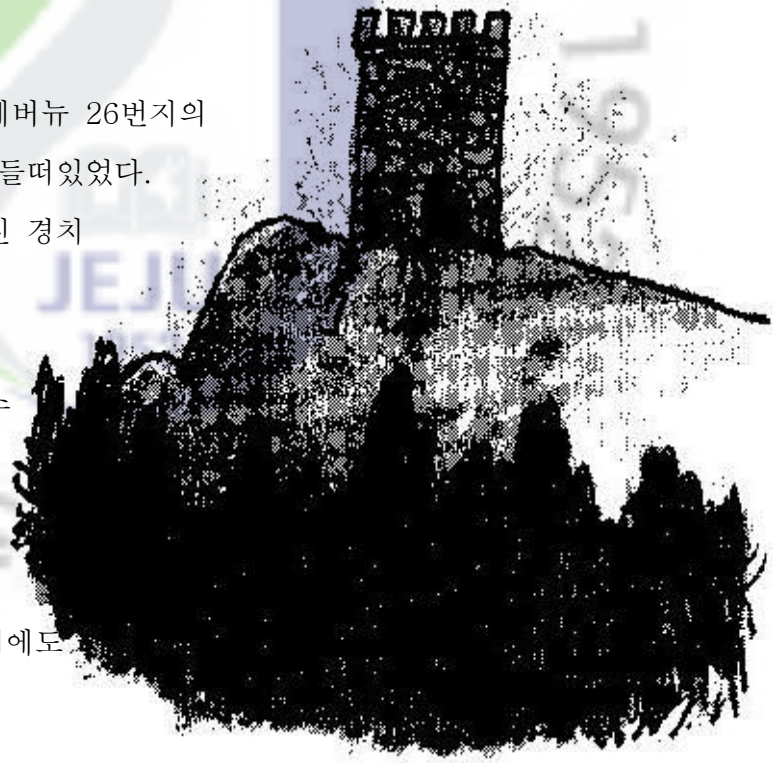
꼭대기에 있는

캐슬크레그 성까지도

보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집을 갖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우리 친척들은 아일랜드계도 있었고 이탈리아계도 있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일랜드계였고 아빠는 이탈리아계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계 친척들은 매리디언에서 별로 멀지 않은 윌링포드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다. 이탈리아계 친척들 중 몇몇은 매사추세츠에 살았고 또 몇몇은 뉴욕 시티에 있는 브롱스에 살았다.

나는 참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두 분, 그리고 증조할머니 까지 계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 할머니를 부를 때나 증조할머니를 부를 때나 모두 나나라고 불렀다. 그게 나를 아주 헷갈리게 했다. 할머니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 지 생각해내는 것은 나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들을 구별해서 부를 방법을 생각해 냈다. 모두들 내가 어느 할머니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지 금방 알아챘다.

증조할머니는 항상 위층에 계셨기 때문에 증조할머니를 나는 이층 나나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는 아흔 네 살이었다. 아일랜드계 할머니는 아래층 나나 할머니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층 나나 할머니를 도와주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주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쳐다보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래층 나나 할머니는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알고 계셨다. 이탈리아계 할머니는 매사츄세츠에 있는 폴강 근처에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할머니를 폴강 나나 할머니라고 불렀다.

나는 아일랜드계인 할아버지를 부를 때는 톰 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토미도 때가 되면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냥 톰이라고 부르게 놔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를 그냥 톰이라고 불렀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가족은 윌링포드에 갔다.

그곳에 도착하면 나는 곧장

이층으로 달려간다.

이층은 나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이층 나나 할머니도 나에게

특별했다. 나는 이층 나나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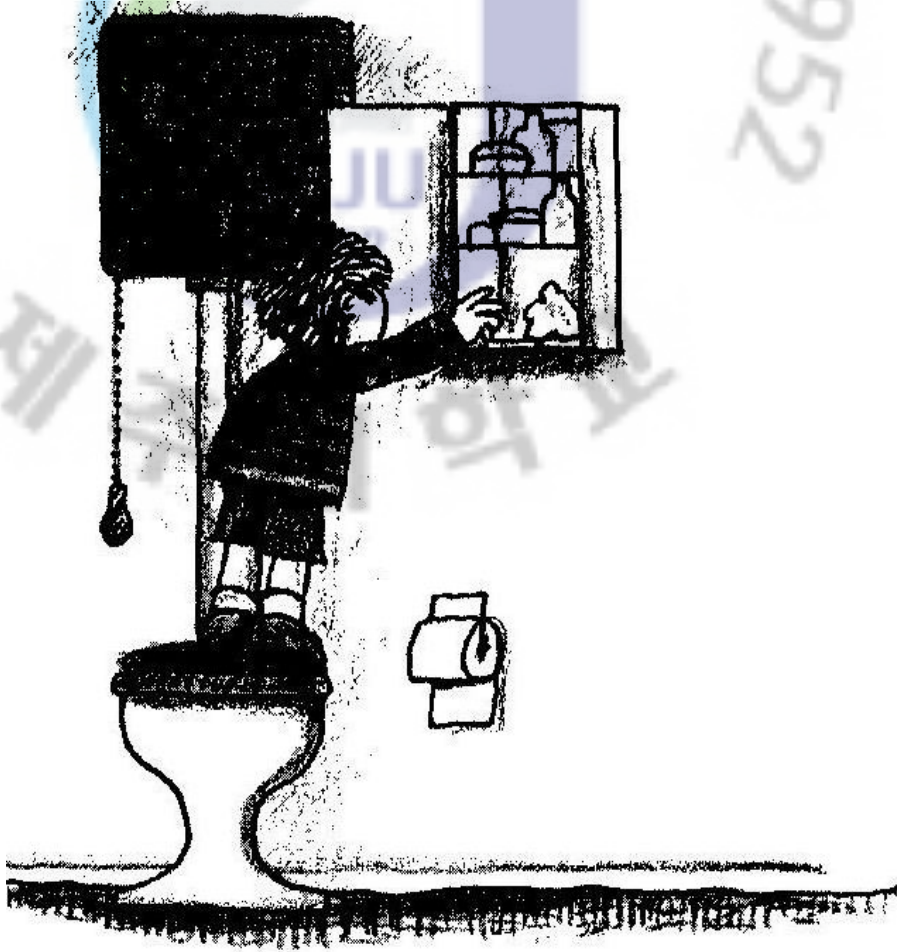
이층 나나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아래층 나나 할머니는 이층 나나 할머니가 침대 옆에 있는 커다란 모리스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하셨다. 아래층 나나 할머니는 기다란 끈을 가져다가 이층 나나 할머니를 의자에 묶어주었다. 그러면 이층 나나 할머니가 그 끈에 기대어 의자에 앉아계실 수 있었다.

나는 나도 할머니처럼 묶어 달라고 아래층 나나 할머니에게 계속 졸랐다. 그러자 할머니는 매듭이 앞으로 향하도록 묶어주었다. 매듭을 앞으로 향하도록 했던 것은 나를 위한 할머니의 배려였다.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지루해지면 의자에서 내려와 이리 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땐 화장실을 갈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층 나나 할머니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얼른 의자위로 다시 올라갔다. 나는 끈을 풀었다 다시 묶었다하는 것에 꽤 소질이 있었다. 내가 다시 끈을 다 묶은 후에야 할머니는 방에 들어오셨다. 이 놀이는 나와 아래층 나나 할머니 우리 둘만의 게임이었다.

나는 이층 나나 할머니의 방을 둘러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층 나나 할머니의 화장대 위에는 예쁜 머리빗과 큰 은색 머리핀들이 들어있는 유리 단지가 있다. 가끔 나는 복도 탁자위에 있던 바느질상자 속에서 민트사탕이나 무지개 색깔 사탕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바느질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사탕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는 실과 바늘 그리고 단추뿐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여기저기 수색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나는 화장실로 가보았다. 나무무늬 변기 뚜껑위에 올라서서 약

을 놓아두는 찬장 문을 열어보았다. 선반에는 은색 종지로 싸여진 조그마한 초콜릿 봉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어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의자로 돌아와 다시 내 몸을 의자에 묶고 이층 나나 할머니와 함께 그 초콜릿을 나눠 먹었다. 전부 다 먹어버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 봉치 속에 있던 것이 초콜릿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설사를 일으키는 약이었다. 할머니도 나도 설사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아래층 나나 할머니는 그 후로는 민트사탕이나 무지개 색깔 사탕을 바느질상자에 놓아두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 제 3 장

새집을 짓기 시작하고 큰 폭풍이 왔던 것만큼이나 흥분되고, 오랫동안 기다려 오던 일이 1938년 봄에 드디어 일어났다. 월트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드디어 메리디언에 도착한 것이다.

엄마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나와 형에게 읽어주곤 하셨다. 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영화가 너무 보고 싶었다. 월트디즈니 아저씨는 내가 이제까지 본 예술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인 것 같다.(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월트디즈니 아저씨의 만화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특히 <실리 심포니>, <미키 마우스>, <도널드 덕>, <아기 돼지 삼형제>



를 좋아했다. 이번엔 처음으로 월트디즈니 아저씨가 장편 만화영화를 만든 것이다. 장장 한 시간 삼십 분짜리 만화영화였다.

나는 자주 영화를 보러 갔었다. 여덟 살인 형보다도 더 많이 가봤다. 학교에 다니기 전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오후에 영화 보러 갈 때면 나를 데리고 다녔다. 엄마도 나도 영화를 무척 좋아했다. 내가 좋아했던 영화배우는 노래와 춤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있는 금발의 곱슬머리 소녀



셜리 템플과 미스 메이 웨스트 누나다.(내가 미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셸리 템플은 내 또래지만 메이 웨스트 누나는 어른이기 때문이다. 어른을 부를 때는 미스, 미스터 아니면 미세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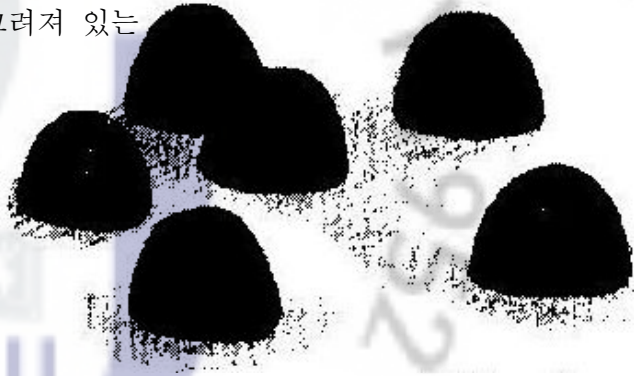
미스 메이 웨스트 누나도 금발머리였고 노래도 역시 잘 불렀다. 누나는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항상 돋보이고 빛

이 났다. 걸어 다니거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극장안의 모든 사람들을 계속 웃게 만들었다.

어느 토요일 나는 엄마와 버디 형과 함께 백설공주를 보러갔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캐피털극장에 일찍 도착해서 줄을 섰다. 엄마가 표를 샀다. 우리가 극장 휴게실로 들어갔을 때 음악이 나오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검은 까마귀가 그려져 있는 사탕을 한 봉지씩 사주었다.

그것은 감초 맛 나는 쫄깃쫄깃한 사탕이었다.(그때는 극장에서 팝콘을 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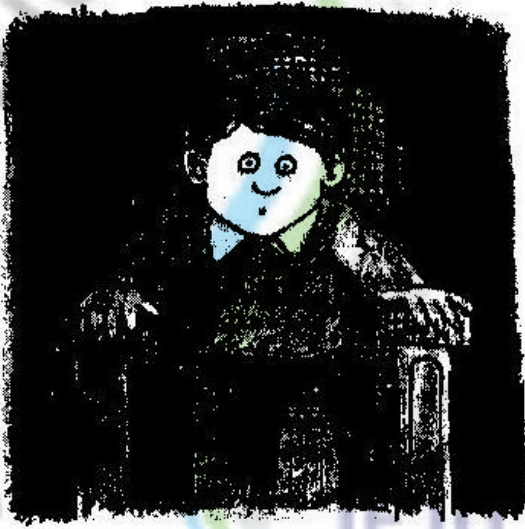
우리는 자리를 찾았다. 불이 꺼졌다. 먼저 뉴스가 나왔다.(뉴스에는 세상에서 진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에 상영될 영화 예고편이 나왔다. 마침내 트럼펫 소리와 함께 반짝거리는 별들이 나타나 화면을 채웠고 우리가 기다리던 “상연”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제목이 적힌 큰 책이 화면에 나타났다. 책 표지가 펼쳐지자, 엄마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날에…….”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백설공주의 모습이 보였다. 하얀 비둘기들이 백설공주의 주위를 날아다녔다. 백설 공주는 무릎을 꿇고 사악한 왕비의 성에서 계단을 뒹고 있다. 백설공주는 비둘기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에 대해 알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비둘기들은 알고 싶다고 ‘구구’ 울어댔다. 공주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소원의 우물’이라고 비둘기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는 왕자님이 오기를 바라며 노래를 불렀다.

“와!” 내가 정말로 백설공주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영화는 내가 본 것 중에

서 최고의 영화였다.



그때 왕자님이 등장했고 백설 공주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사납고 심술궂어 보이는 사악한 왕비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형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사악한 왕비는 마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거울이 대답하자 사악한 왕비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라 분노로 가득 찼다. 형은 더 깊숙이 의자에 파고들었다.

사악한 왕비가 사냥꾼에게 백설 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하자 형의 몸은 아예 뻗뻗하게 굳어버렸다. 사냥꾼이 공주를 데려간 곳은 험락그로브 숲과 아주 비슷한 곳이었다. 나무 가지들이 손을 뻗어 백설공주를 덮쳤고 노란 눈동자들이 공주를 노려보았다.



무서운 장면이었지만 나는 재미있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나 집에 갈래요.” 형은 소리 질렀다. “자, 가자.” 엄마가 일어



서면서 말씀하셨다.



“전 안 갈래요”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월트디즈니 아저씨의 영화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엄마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면 토미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만 봐야한다. 엄마는 형과 휴게실에 있을게.”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도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엄마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만약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면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괜찮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사악한 여왕이 백설 공주에게 줄 독 사과를 만들고, 마법의 약을 먹어 사악한 마녀로 변장하는 장면을 그 아이들이 본다면 옷에 오줌을 쌀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나도 물론 그 장면에서는 조금 무서웠다.)

그런데 이야기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왜 사악한 여왕이 독 사과를 지금 만들고 있지? 원래 이야기에서는 지금이 아닌데 말이야. 원래는 여왕이 공주에게 사과를 주기 전에 난장자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간다. 공주의 드레스 조끼 끈을 꼭 조여서 공주를 숨 막혀 기절하게 만든다. 이때 난장자들이 집으로 돌아와 공주가 죽기 직전에 끈을 풀어주고 백설공주를 구해준다.

그 다음에 왕비는 독이 묻은 머리빗을 가지고 백설공주를 다시 찾아간다. 이번엔



독이 묻은 빗을 공주의 머리에 쏟는다. 백설공주는 또 기절한다. 이번에도 공주가 죽기 직전에 난장이들이 집으로 돌아와 공주를 구해준다.

그 다음이 바로 독 사과가 나올 차례였다.

아마도 월트디즈니 아저씨는 원작 이야기를 읽지 않았나 보다. 이 영화에는 독 사과 장면만 나왔다. 나는 일어서서 영화스크린을 향해 소리쳤다. “레이스 끈 장면이 없잖아요!” “머리빗 장면은 어디 있어요?”

“셋! 애야, 앉아라.” 내 뒤에 앉아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영화의 내용은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유리관으로 옮겨놓을 때 까지는 책의 내용과 비슷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월트디즈니 아저씨가 진짜 백설공주 이야기책을 잘 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숲속의 잠자는 공주>에 나오는 내용을 섞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는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뽀뽀를 해주자 백설공주가 깨어났다. 진짜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왕자가 백설공주의 관을 자신의 궁전으로 가지고 가는 동안에 공주의 입에서 독 사과가 떨어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공주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영화스크린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또 다시 화를 낼 것 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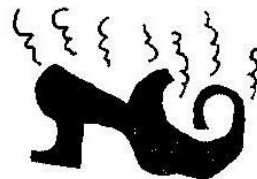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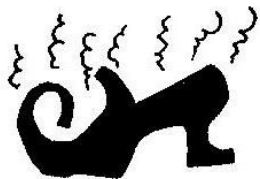
하지만 “끝”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나오자 나는 그만 일어서서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결혼식 장면은 어디 있어요?” 라고 외쳐버렸다. “불타는 빨간 구두가 나와야 한다고요. 사악한 왕비가 그 구두를 신고 저절로 춤을 추면서 죽어 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진짜 이야기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다. 바로 그때 엄마가 달려 들어와 내 손을 잡고 나를 끌고 나갔다.



“윌트디즈니 아저씨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잘 읽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소리쳤다.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캐롤 크레인과 함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다시 보러 갔을 때 나는 캐롤에게 윌트디즈니 아저씨는 진짜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이번엔 스크린을 향해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사악한 여왕이 불타는 빨간 구두를 신고 저절로 춤추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제 4 장



1938년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무렵 아빠는 우리 집을 지어주기로 한 목수아저씨와 크게 한 번 싸운 적이 있다. 엄마 아빠는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집을 지어주길 원했지만 목수아저씨는 말을 통 들으려하지 않았다. 아빠는 “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그 아저씨를 해고시켜버렸다.

그래서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 집은 겨울 내내 아무런 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그렇게 그대로 있었다. 엄마 아빠는 형과 나를 차에 태우고 집 주위를 돌아보고는 하였다. 완성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있는 우리 집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부활절이 왔다. 부활절이 되면 항상 신났다.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 바구니를 가



저오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인형을 선물로 받았다. 오리 인형이 제일 좋았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새로 산 옷을 입고 교회에 갔다. 엄마는 형과 나에게 옷을 멋있게 입혀보는 것을 좋아했었던 것 같다.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다. 형은 긴 바지에 외투를 입고 넥타이까지 댔고, 나는 반바지에 줄무늬 셔츠, 그리고 베레모를 쓰고 있다. 우리는 그야말로 어른들이 말하는 ‘페셔널스타’였다.



어느 봄날 아빠가 말씀하셨다. “있잖아?, 조니파팔로 아저씨, 토니네치 아저씨, 그리고 다른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짓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어.”

야호!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 집에서 마침내 살 수 있을 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빠 친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에서는 페어마운트에버뉴에 전봇대도 세우고 가로등도 세워서 그곳을 진짜 거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기계들이 길에 있는 흙을 엄청나게 많이 파내어서 길이 전보다 낮아졌다. 우리 집은 원래는 작은 언덕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높이 솟아올라 버린 것이다. 엄마가 울었다. 아빠는 욕을 마구 해댔다.



이제는 벽을 세워야만 했다. 앞마당이 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현관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도 만들어야했다. 차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차고 진입로 또한 만들어야 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나서야 집 짓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높이 솟아버린 우리 집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길은 여전히 흙투성이였다. 비가 올 때마다 그 길은 진흙길로

변했다.

그런데 아빠 친구들은 진짜 똑똑한 아저씨들이었다. 판자와 나무 널빤지 들을 가져와서 집까지 연결된 긴 통로를 만들었다. 조니과팔로 아저씨와 토니네치 아저씨 그리고 다른 아저씨들은 모두 함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곧 지붕이 만들어지고 내부 벽들도 세워졌다. 석고보드로 만들었는데 석고보드는 무거운 판지 같은 것이다. 나중에 미장이 아저씨들이 와서 석고 보드위에 젖은 석고를 바를 것이다. 이 석고가 마르면 부드럽고 하얀 벽이 완성되는 것이다.



미장이 아저씨들이 오기 전에 조니과팔로 아저씨는 연장통에서 하늘색 분필을 꺼내어 나에게 주셨다. 아저씨는 내가 커서 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나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텅 빈 벽을 보고 무엇을 할 지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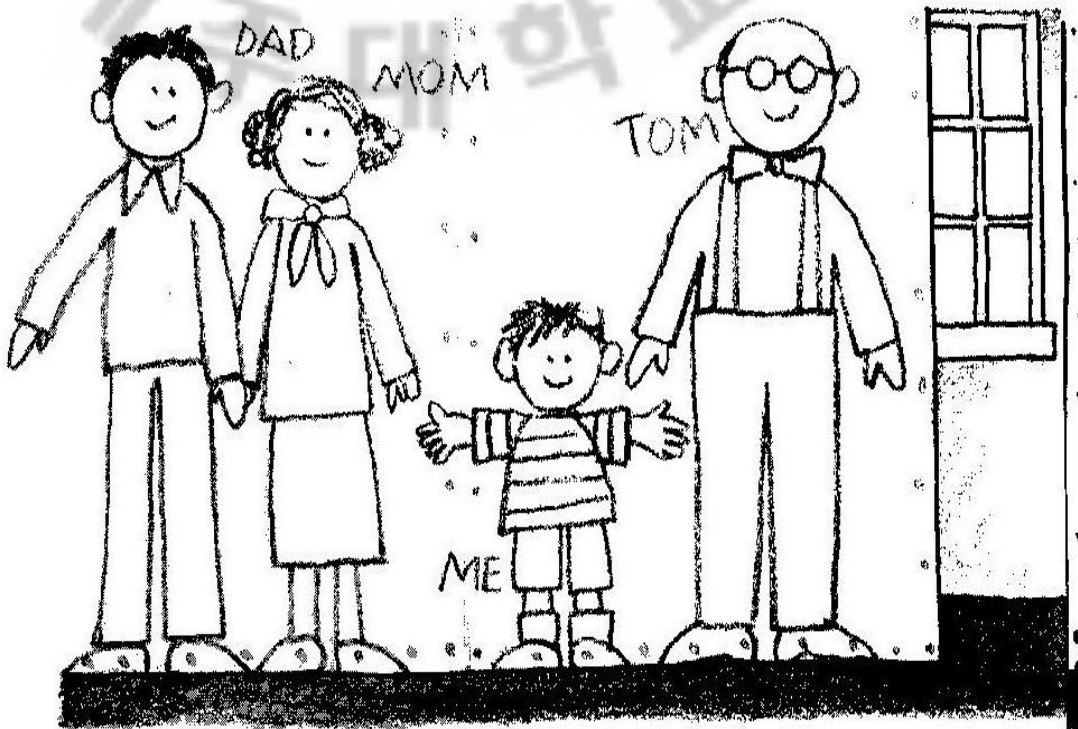


났다.

나는 엄마에게 벽에다 그림을 그려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엄마와 아빠는 얘기를 나누시더니 마침내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래, 토미야. 석고판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할게. 하지만 석고 바르는 아저씨들이 오면 그만두어야 한다. 알겠지?”

물론이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들이 내가 그린 그림들이 얼마나 잘 그려졌는지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질 것이다. 나는 거실 벽 각 모퉁이마다 우리 식구들을 그려 넣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벽난로 옆에 있는 모퉁이 벽에 그려 넣었다. 톰 할아버지는 반대 편 벽에 그렸다. (나도 거기에다 그렸다.)



버디 형과 아래층 나나 할머니 그리고 폴강 나나 할머니는 부엌 옆에 있는 벽에다 그렸다. 그렇게 하면 할머니들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이층 나나 할머니는 그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찰스 삼촌과 삼촌의 여자 친구인 비바 누나는 현관문 옆 벽에 그렸다. 나는 두 개의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촌들의 모습도 그렸다.



우리 집에는 아직 이층으로 가는 계단이 없다. 그래서 이층에 있는 침실에는 가볼 수 없었다. 엄마는 전부더 가장 큰방은 엄마와 아빠가 쓸 것이고, 가장 작은 방은 만약을 대비해서 아기 방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다. (나중에 그 방은 내 여동생 마우린과 주디를 위해 필요하게 되었다.)

만약 계단이 있어서 이층으로 올라가 볼 수 있었다면, 아마 나는 형과 함께 쓰기로 한 방에 가서 내가 어느 쪽을 사용할 지를 정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계단이 없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미장이 아저씨들이 왔다. 아저씨들은 나의 멋진 그림들을 다 지워 버렸다. 나는 몹시 화가 났다. 하지만 톰 할아버지는 비록 석고와 벽지가 내 그림들을 가려버리긴 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톰 할아버지는 항상 나를 기분 좋게 해 주셨다.

우리 집이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춰가자 아빠는 “뒤뜰 가꾸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때 마당은 잡초와 무성한 풀로 가득했다. 잡초들을 뽑고 마당을 가꾸어야만 잔디를 심을 수가 있었다.

아빠는 말씀하셨다. “가을이 올 때 까지 기다렸다가 마당을 정리해야겠어. 지금은 앞 벽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현관으로 연결될 계단 올리는 작업을 해야겠어.”

하지만 그 일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에서 또 사람들이 왔고 더 많은 흙을 긁어

났다. 우리 집은 공중에 더 높이 뜬 것처럼 보였다. 더 높은 벽이 필요해 졌다.

엄마는 계속 울었고, 아빠는 계속해서 욕을 해댔다.





## 제 5 장



1939년 가을이었다. 1938년에 있었던 폭풍이 지나간 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갔다. 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 집 주소가 페어마운트 26번지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신이 나 있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글 읽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엄마가 책을 읽어 줄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학교에 가는 첫 날이 되었다. 나는 유치원 오후반이다. 엄마와 나는 킹스트리트로 걸어갔다. 길모퉁이에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학교 가는 길 알아요.” (학교까지는 정말 가까웠다.) “저 혼자 갈래요.”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내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엄마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나는 긴 계단을 올라갔다. 그 계단은 지난 해 엄청나게 큰 폭풍이 몰아치던 날 우산을 들고 있던 어떤 아이가 쓸러 내려갔던 바로 그 계단 이었다. 나는 그때 학생들은 그 계단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했다. 그 계단은 대통령이나 국왕 아니면 교육감만이 다닐 수 있는 곳 이었다.

나는 큰 문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엄청 무거운 문이었다. 어떤 여자가 거기에서 있었다. “너는 누구니, 꼬마야?”

“저는 토미 드파올라 입니다. 근데 누구세요?”

“나는 버크 교장선생님이야.”  
(나는 그 후 칠 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다.)



버크 교장선생님은 나에게 다시는 앞문으로 다시는 다니지 말라고 하시고서는 유치원 교실이 어디인지 알려주셨다.

교실 안은 아이들로 꽉 차있었고, 대부분 울거나,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다. ‘참, 아기들도 아니고.....’ 나는 이 아이들과 앞으로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선생님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 분에게 갔다. 내 예상이 맞았다.

“우리 이름 한번 말해볼까?” (선생님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쓰셨다. “지금은 우리가 낮잠을 자야 할 시간이야.” 또는 “우리 의자를 원으로 만들어 볼까?”처럼 말이다.)

“저는 토미 드파올라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와, 우리는 참 운이 좋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조셉 형을 유치원 때 가르쳤단다.” (버디 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형과 나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곧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우리 언제 글 읽는 것을 배워요?” 나는 물었다.

“아, 유치원에서는 글 읽는 것을 배우지 않아. 내년에 1학년이 돼서야 배운단다.”

“알겠어요. 저는 내년에 다시 올게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는 학교 밖으로 나와 곧장 집으로 갔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빠는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엄마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혼자서 장 보러 나가셨다.

학교에서 아빠가 계신 이발소로 전화를 했다. 아빠는 엄마를 찾아 콜럼버스에버뉴에 있는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나는 집에 있었다. 엄마의 책 한권을 들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나도 글 읽는 법을 배워서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엄마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아빠는 “이번 일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군, 여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일하러 나가셨다.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잘 들어보렴. 만약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넌 시험에 통과하지 못 할 거야. 그리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 하면 1학년으로 올라 갈 수 없단다. 그렇게 되면 너는 앞으로 글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학교로 돌아갔다. 하지만 유치원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 제 6 장

이제 “뒤뜰 가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뜰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태워버리는 것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형과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러 우리 집에 왔다. 캐를도 왔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화창한 날이었다. “날씨가 아주 중요하단다.” 아빠가 말씀 하셨다.

“왜요?” 나는 물었다.

“음, 바람이 불면 불이 번질 수 있단다. 만약 그러면 집이 다 타 버릴 수도 있거든.” 물론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좋아, 자! 이제 시작하자,” 아빠가 말씀 하셨다.

“자, 애들아, 뒤로 물러서라.”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빠와 토니네치 아저씨, 조니과팔로 아저씨, 크레인 아저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뒤뜰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헌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 젖은 포대자루를 들고 있는 사람들 제각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스를 들고 서 있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구석에서 불을 붙이자 불은 금세 활활 타올랐다. 사람들은 빗자루에 물을 적시고 불길의 바깥쪽에 둥그렇게 서서 불을 끄기 시작했다. 모두들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완수하여 내어 불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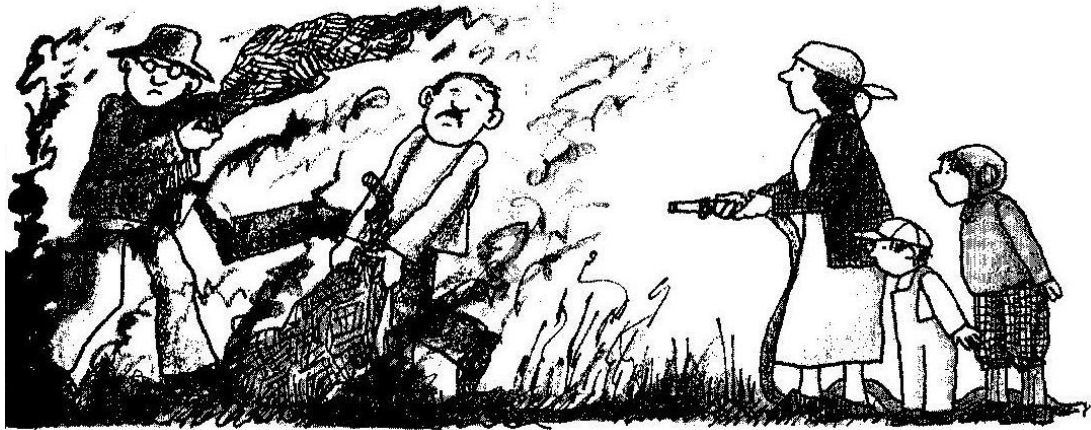
“다시 한 번 해봐, 조!” 누군가가 아빠에게 외쳤다. 이번에는 뜰의 가운데서 불을 붙였다. 불은 곧 번지기 시작했고 활활 타올랐다. 모두가 소리쳤다. “야호!”

그 때 연기가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재빠르게 비켜났다. 불이 갑자기 크게 번졌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불길을 잡기 위해 젖은 빗자루와 포대자루를 들고 마구 두드렸다.

빗자루로 두들겨대던 사람들이 불길을 잡았다. 이에 질세라 포대자루도 곧 불길을 잡았다. 연기가 더 심해졌다.

“서둘러, 플로스!” 아빠는 엄마에게 외쳤다. “호스 가져와, 호스!”

“버디야! 수도꼭지를 틀어라!” 엄마는 외쳤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



“집 쪽으로도 물을 뿌리세요!” 삼촌이 소리쳤다. 엄마는 집을 향해 물을 뿌렸다.

“불을 끄세요!” 네치 아주머니가 소리 쳤다. 엄마는 불길을 향해 호스를 돌렸다.



엄마는 불이 꺼질 때까지 여기저기 사방으로 정신없이 물을 뿌려댔다.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다!

잡초와 풀들은 시커멓게 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새까맣게 되었다. 옷은 물론이고 얼굴까지 연기로 까맣게 그을렸다. 엄마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에 젖어버렸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보세요,” 네치 아저씨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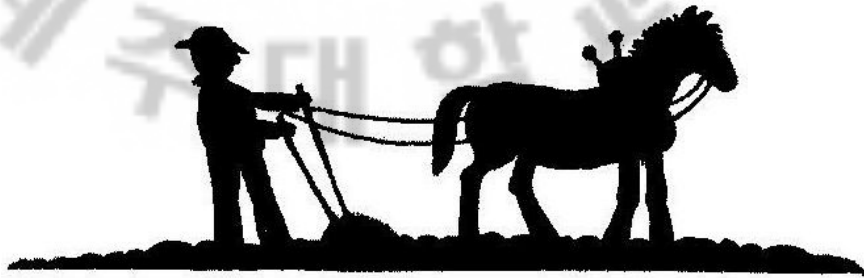
“하지만 제가 집을 구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정말 그랬다. 나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처음부터 다시 짓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안 되지요.

마당을 다 태우고 난 뒤 아빠는 이탈리아 할아버지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그 할아버지는 말과 쟁기를 가지고 있었다. 마당에 쟁기질을 하는데 며칠이 걸

렸다. 그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있었다. 돌맹이들이 계속해서 뿔뿔히 올라왔다. 아빠는 앞 벽을 만드는데 쓰기위해 그 돌맹이들을 따로 모아두었다.

마당의 돌맹이들을 일궈내는 일을 마치고 나자 할아버지는 말에서 쟁기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사슬로 만들어진 장비를 연결했다. 그 장비를 땅에 놓고 할아버지가 말과 함께 끌어당기자 마당이 매끄럽고 평평해졌다. 할아버지는 말과 함께 몇 번이고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마당이 근사하게 보였다.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말이다.



## 제 7 장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니, 비가 그냥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구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강한 북동풍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했다. 거리는 온통 물로 가득 찼다.

그날 아침 엄마는 아빠를 이발소에 데려다주고 나서 형과 캐롤 크레인 그리고 동네 친구들을 학교에 태워주기 위해 집으로 왔다. 나도 엄마를 따라 갔다.

나는 오후가 돼서야 학교에 갈 것이었기 때문에 형과 누나들을 학교에 내려주고 나서 엄마와 나는 페어마운트메뉴에 가보았다. 거리는 큰 강처럼 변해 있었다. 진흙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엄마는 한 구석에 차를 세웠다. 진흙바다처럼 변해 버린 길을 운전해 들어갈 수

가 없었다. “우리는 분명히 흙탕 속에 빠져 버리고 말거야.” 엄마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페어마운트어베뉴 26번지 쪽을 쳐다보았다. 새롭게 가꾼 뒷마당은 엄청난 소리를 내며 흙탕물을 집 양쪽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집 안이 괜찮아야 할 텐데.” 엄마는 말씀하셨다.

“엄마, 신발 벗고 한번 가 봐요.” 나는 말했다.

“아니야, 아빠가 오늘 일 끝내고 와서 보실 거야.” 엄마는 말씀하셨다.





나는 실망했다. 흙탕물을 튀기면서 침병대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아빠가 돌아 오셔서는 집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진흙물이 약간 지하실로 들어가는 했지만 금방 청소 해버리면 돼. 하지만 마당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길이 문제야. 시에서 하던 길 정비를 다시 다해야 할 것 같아. 완전 엉망이 됐어.”

“오, 이런 세상에,”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새집으로 이사는 하는 것이 더 늦어지는 것 같네.”라고 말할 뿐이었다.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톰 할아버지의 여동생인 넬 고모할머니로부터 수호천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넬 고모할머니는 만약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호천사에게 부탁해보라고 말씀해주셨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아마도 들어주실 거라고 하셨다. 나는 지금이 나의 수호천사에게 부탁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호천사가 와서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비가 멈췄다. 날씨가 추워졌다. 일주일 만에 페어마운트 길에 있는 모든 진흙이 그대로 얼어버렸

다. 차들은 그 거리로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일하는 아저씨들이 다시 왔다.

드디어 집안에 계단이 만들어졌다. 이층으로 올라가 이층 방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락방에도 올라가 볼 수 있었다. 지하실에 내려가 화로도 볼 수 있었고, 엄마가 사용하실 세탁실이 어디인지도 볼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빨라졌다.

“좋아 보이는구나.” 아빠가 형과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너희들이 이 집에 올 때는 이사하는 날이 될 거다. 새해 첫날 즈음이 될 거야.”



## 제 8 장



새해가 오면 이사를 한다. 그전에 우리는 콜럼버스에버뉴에 집에서 마지막 성탄절을 보낼 것이다. 아빠는 마지막으로 산타클로스 벽난로를 세우셨다. 판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 집에는 진짜 벽난로가 있었다. 엄마는 산타클로스 벽난로 위에 숨으로 된 눈을 붙였고 크리스마스 마을도 만들어 세워놓았다.

크리스마스 구유 장식 모형도 세웠다.

엄마가 말씀하셨다. “내년에는 새집에 놓을 새 크리스마스 구유 장식 모형을 살 거야.”

크리스마스이브에 이웃사람들이 파티를 하기위해 우리 집에 왔다. 크레인 아주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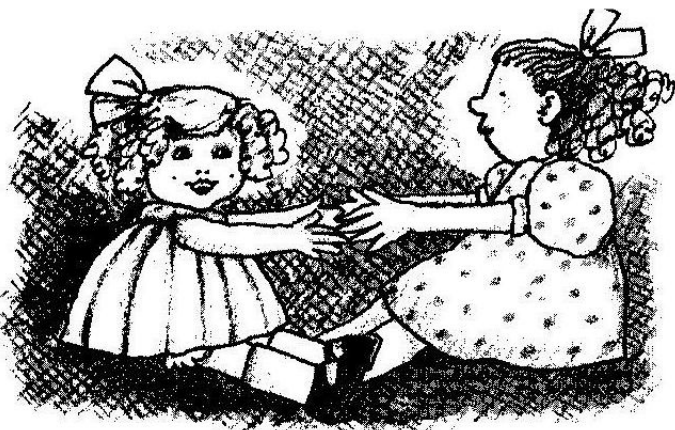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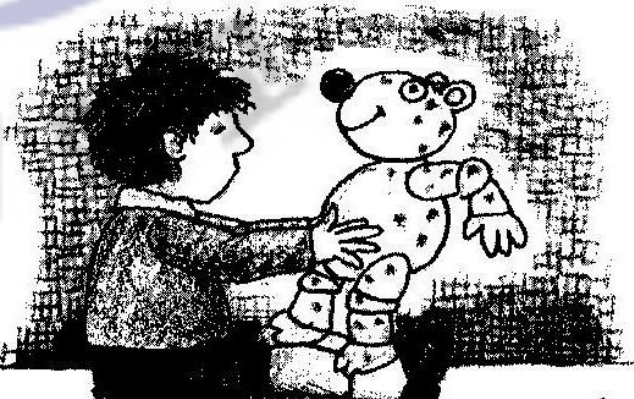
나는 울먹였다. “내년 성탄절이 되면 너희 가족이 보고 싶을 거야.” 아주머니는 코를 훌쩍였다. 아빠는 아주머니를 껴안아 주었다. 캐롤 크레인도 내가 보고 싶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 네가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 집에 놀러오면 되잖아.” 엄마가 말씀하셨다.

아주 멋진 성탄절이었다.

산타할아버지는 나에게 위글리 게임과 책을 선물해 주셨다.

하모니카와 지프인형도 선물로 받았다. 지프인형은 “뽀빠이” 만화에 나오는 인형이다.

버디형은 야구 글러브와 공을 받았다.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선물을 받았다. 캐롤 크레인은 진짜 사람과 똑같이 만든 셀리템플 인형을 받았다. 정말 크고 진짜처럼 보여서 마치 인형이 노래하고 춤을 출 것만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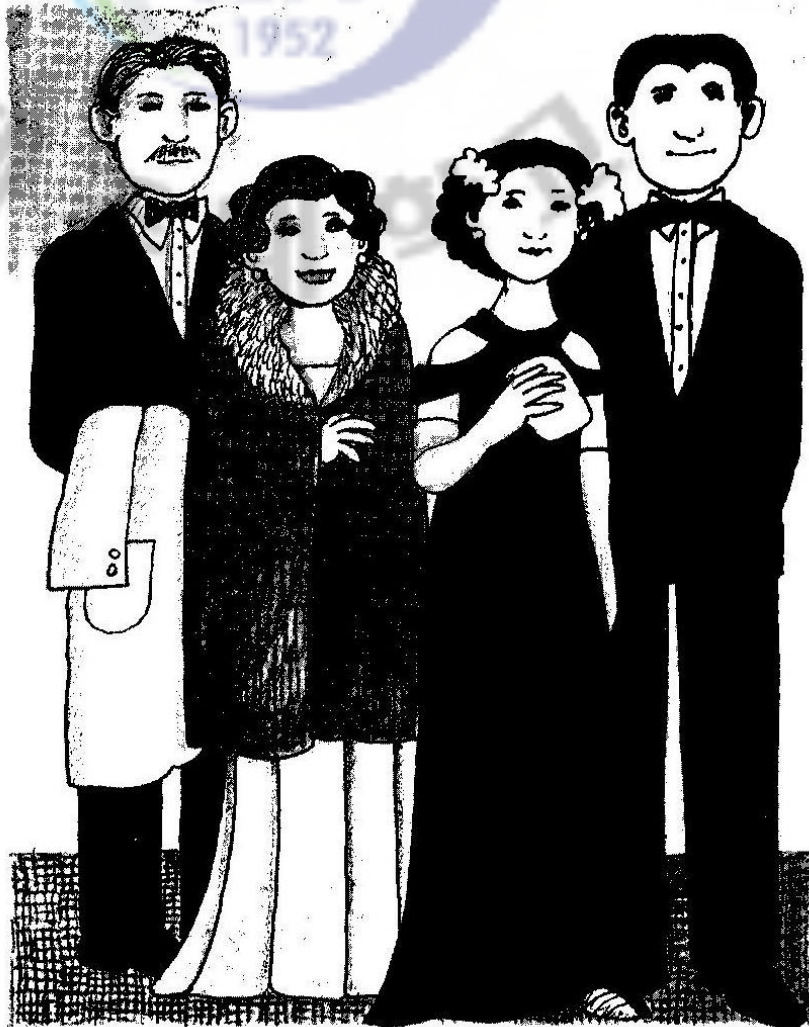




성탄절에 교회를 다녀온 후 우리 가족은 톰 할아버지와 나나 할머니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찰스 삼촌도 친구인 미키 린치와 함께 와 있었다. (우리는 그 삼촌 친구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레이비소스와 드레싱을 얹은 칠면조 요리를 먹었다.

“티모시,(톰 할아버지는 나를 항상 그렇게 불렀다.) 새집으로 이사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정말 신나겠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정말 그랬다.



새해 전날에 엄마와 아빠는 영화배우처럼 옷을 차려입었다. 엄마는 검은 긴 드레스와 긴 장갑 그리고 회색 신발로 멋을 냈다. 아빠는 텍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댔다. 엄마와 아빠는 찰스 삼촌과 삼촌 여자 친구인 비바 누나와 함께 웰링포드 엘크스 클럽에 갈 예정이었다. 물론 크레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함께 갈 것이다. 캐롤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알티어 모린이 우리를 돌보아주기 위해 이층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우리들만의 파티를 할 것이다.

엄마는 아이스박스 안에 브라우니와 콜라를 준비해 놓으셨다. 크레인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파티모자와 새해를 알리는 자정이 되면 불어댈 뿔피리를 주셨다.

“와, 밤 열두시가 되려면 분명히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거야. 나는 콜라와 브라우니를 좀 먹고 잠깐 낮잠을 자야겠어.” 형이 말했다.

나와 캐롤, 그리고 알티어는 새 위글리 게임을 하며 놀았다. 우리는 라디오도 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알티어의 부모님이신 모린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위층에

서 내려오셔서 팝콘 한 봉지와 아이스크림을 주셨다.

“파티를 하려면 필요할거야.” 모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모린 아저씨는 라디오를 켜서 뉴욕 시티 팬시 나이트클럽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주파수로 채널을 맞추었다. 라디오 아나운서가 말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즐길 시간입니다.”



다. 모두가 좋아하는 아일랜드 테너가수인 모튼 다우니의 경쾌한 목소리로 최신 히트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모튼 다우니는 엄마의 사촌이었다. 나는 버디형을 깨웠다.

“모튼 아저씨가 라디오에서 노래 부를 거야.” 나는 말했다.

“그래서 뭐? 나는 잠이나 잘래.” 버디형이 말했다.

“형 새해 맞이하는 것을 놓칠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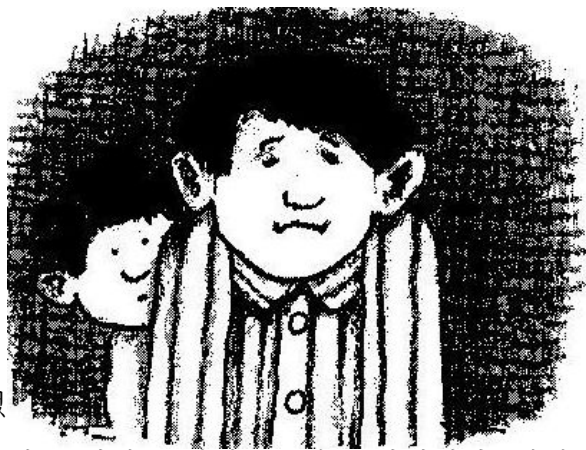
“상관없어.”

“아이스크림 있는데.”

“알았어. 일어날게.”

우리는 파티모자를 쓰고 콜라를 마신 다음 팝콘과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말했다. “지금 여기는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십, 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 일! 194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빨피리를 불고 외쳤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 제 9 장



모두가 난리가 났다. 엄마와 아빠는 박스와 옷들을 포장하면서 여기 저기 바쁘게 움직였다. “시계 포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건 어느 박스가 맞을까?”

이웃 사람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플로스, 조, 우리도 왔어요.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요.”

“안녕, 애들아,” 찰스 삼촌이 차를 끌고 오셨다. “떠날 준비 됐나요?”

우리는 웰링포드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삿짐을 나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진짜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었다. 사실은 하나도 빠지 않고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싶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 된 새집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신날지 생각해봐.” 크레인

아주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주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찰스 삼촌과 미키 린치 누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았다. 찰스 삼촌은 우리에게 만화책을 사주셨다. 우리는 친척인 마블아주머니네 집과 빌과우어 아저씨 집에 놀러갔다. 벨 이모할머니 집에도 갔다. 이모할머니는 점심으로 샌드위치와 함께 설탕과 우유를 넣은 차를 만들어 주셨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나는 “이제 갈 시간이 되었나요?” 라고 물었다.

“아직.” 찰스 삼촌이 대답했다.

우리는 길 건너편에 있는 톰 할아버지와 나나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료품 가게로 갔다. 오후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우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통조림 식품들을 선반위에 정돈하는 일을 했다.

“이제는 가도 되나요? 나는 물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곧 갈 거야. 우선 저녁식사부터 하고.” 찰스 삼촌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큰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식탁은 파인애플과 여러 가지 다른 과일 그림들이 그려진 식탁보로 덮여있었다.

“우리 언제 가요?” 나는 물었다.

“너희 엄마가 전화하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만화책들 중 한권을 골라 읽어 주셨다. 나는 재봉실에 놓아두었던 나무 블록을 가지고 놀기도 했다.

할아버지와 버디형 그리고 찰스 삼촌과 함께 다이아몬드 게임도 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나는 펄쩍 뛰었다.

“그래 알았다. 가는 길에 같이 보내마.”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버디형과 나는 뛰어나와서 삼촌 차에 올라탔다. 삼촌 여자 친구와 미키 런치 누나도 태웠다.

와레스빌을 지나고 트레이시도 지나고 메리딘 남쪽을 지나서 하노버스트릿으로 갔다. 그리고는 하이랜드에버뉴로 향했다. 긴 언덕을 달려서 페어마운트에버뉴쪽으로 우회전을 했다.

우리 집 현관문 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임시로 만든 계단을 올라갔다. (봄이 되어야 진짜 계단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관문 옆 벽에는 금속으로 된 검은 색의 나뭇가지 모양위에 다람쥐 형체의 장식이 달려있었다. 나뭇가지 모양 장식 끝에는 숫자 26이 쓰여 있었다.

“어서 들어가 보렴,” 찰스 삼촌이 말씀하셨다. “초인종을 눌러봐.”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아빠가 있었다. 엄마도 있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다. “여기가 너희 새집이란다.”

나는 달려 들어갔다. 계단을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는 방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두 개의 새 침대가 있었고, 새 옷장도 두 개가 있었다. 벽에는 배 조종 바퀴 모양의 거울이 걸려 있었다. 침대는 아래로 향해 있었고 문 가까이에 있는 침대 위에는 내 잠옷이 놓여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 침대였다. 여기가 내 방이다. 이곳이 우리의 새집이다. 이 집이 바로 멋진 우리 집, 페어마운트에버뉴 26번지 집이다.





## 작가의 메모

수년간 많은 젊은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점점 더 많은 독자들이 하나 같이 “언제 책을 쓸 건가요?”라고 물어왔다. 하지만 책을 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스스로 위축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나를 도와주던 밥 헤첼이 말했다. “제게 생각이 있어요. 평소에 늘 이야기 해 주셨지만 책에는 한 번도 실어보지 못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는 시리즈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땡’하고 머릿속에 종이 울리고, 스파크가 일어났다. “바로 그거야.” 나는 말했다.

그 후 작업을 시작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에 관한 일화들을 생생하게 기억해 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러한 기억들은 부모님이 한 살짜리 토미부터 나의 댄스파트너였던 캐롤 모리세이, 다양한 가족 및 친구들과의 나들이,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까지 모든 것들을 홈비디오에 찍어두셨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수년 동안 책 출판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나의 집필 작업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집필 작업에 착수했고, 내 친구이자 편집자인 마가렛 프릿의 도움을 받아 내 의식의 흐름을 따라 글을 써 나갔다. 마가렛의 도움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이 책안에 모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 책에는 아직 내 여동생이 태어나지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아무쪼록 내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 어린 시절의 많은 기억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